

내포지역의 지성사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내포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개펄과 평야가 발달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고 서울과 가까우며 중국과 내통하여 일찍부터 선진지역으로서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리하여 고려말의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고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으며 천주교가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도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포지방의 학

문활동과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활동이 개인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2. 내포의 자연환경

내포(內浦)는 “안 개”라고도 하는데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파고든 후미진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가야산(伽倻山)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의 서북지역을 지칭한다.¹⁾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는 내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에 가야산(伽倻山)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西海)가 솟 들어온 곳(斗入處)이다. 동쪽은 큰 들판(大野)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由宮津)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1) 任先彬,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百濟文化』 29, 2000, 12)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주(公州)와 통한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士大夫)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에 학질과 염병이 많다.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丘陵)과 원습(原濕)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泉石)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라다. 그 중에서 보령(保寧)의 산천이 가장 아름답다. 고을 서편에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있고 그 안에 영보정이 있다.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활짝 트여서 명승지라 칭한다. 북쪽에는 결성(結成)·해미(海美)가 있고, 서쪽에는 큰 개(大浦) 너머로 안면도(安眠島)가 있다. 3읍은 가야산의 서쪽에 위치한다. 도 북쪽에는 태안(泰安)과 서산(瑞山)이 있다. 강

화(江華)와 남북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서산 동쪽은 면천(沔川)과 당진(唐津)이며, 동쪽으로 큰 개(大浦)를 건너면 아산(牙山)이다. 북쪽으로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기의 남양(南陽) 및 화랑과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다. 이 4읍은 가야산의 북쪽에 위치한다. 가야산의 동쪽은 홍주(洪州)와 덕산(德山)이다. 모두 유궁진(由宮津)의 서쪽에 있는데, 개(浦) 동쪽의 예산(禮山) 신창(新昌)과 더불어 뱃길로 한양(漢陽)으로 통한다. 대흥(大興)은 곧 백제의 임존성(任存城)이다. 이 11고을은 모두 오서산의 북쪽에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내포의 중심지는 가야산이고, 가야산 앞뒤의 10고을을 내포라 했다. 즉 가야산의 서쪽에 보령 결성 해미의 3고을이 있고, 북쪽에 해안 서산 면천 당진의 4고을이, 동쪽에 홍주 덕산 예산 신창의 4고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가야산 앞 뒤 10고을을 내포라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11고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10여 고을쯤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

고 내포의 포(浦)는 유궁진(由宮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최남선(崔南善)도 “내포라 함은 충청도 서남우(西南隅)의 가야산맥을 환요(環繞)하여 있는 여러 고을을 지방 삽교천(插橋川)의 상류, 유궁진의 안쪽에 있다 해서 이르는 말”이라 했다.³⁾ 일본사람들은 금강(錦江)유역을 내포지방이라 했지만,⁴⁾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⁵⁾

내포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 물이 역류하여 많은 포구(浦口)가 발달되었다. 따라서 해운(海運)에 편리하여 일찍부터 조운로(漕運路)가 발달했다. 전라도 법성창(法成倉)에서 출발한 조운선(漕運船)이 보령 앞 바다를 거쳐 태안의 안흥량(安興梁)과 당진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안흥량은 암초가 많고 조류(潮流)가 빨라 선박의 통행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려 1134년(인종 12)과 1391년(공양왕 3)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에 조거(漕渠)를 뚫으려다가 실패했다. 중종조(中宗朝)에는 의항운하가 굴착되어 일시 사용되기도 했다. 인조조(仁祖朝)에도 안면곶을 뚫어 안면도를

2)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清道

3)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篇 第二 人文類 內浦와 維麻

4) 野口湜興, 『續帝國大地誌』 韓國·南滿洲篇 錦江

5) 盧道陽 〈內浦文化圈의 喚起〉(『內浦文化情報』 장간호, 1999. 7. 4, 內浦文化院) 8~11면.

섬으로 만들면서 백사수도(白砂水道)를 완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안면도의 내해에서 직접 배가 서해로 나갈 수 있어서 200여리를 도는 뱃길을 단축할 수 있었다.⁶⁾ 반면에 육로 교통은 금북산맥(錦北山脈)에 막혀 주요 역로(驛路)에서 빗겨나 있었다. 그러나 가야산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 없어 외지기는 하지만 육로교통도 그리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해로 육로의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로 가기가 쉬워 서울의 사대부들이 많이 옮겨 살았다. 또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고 서해로 중국과 직통할 수 있어서 명문(名門) 거족(巨族)들이 누대로 많이 살았다. 그리고 선진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선진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출중한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

3. 성리학(性理學)의 수용과 내포

고려말에 내포의 지식인들은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다. 그 중에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연구 보급한 백이정(白頤正)의 묘소는 보령군 우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尙)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있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와 이를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백이정이다. 그리고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李穀)·이색(李穡)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이다.

이곡(1298~1351)은 1317년(충숙왕 4)에 거자시(擧子試)에 합격한 뒤 1332년(충숙왕 복위 1) 원나라의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鄉試)에 합격하여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 뒤 귀국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제현(李齊賢)·민지(閔漬)등이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하고, 충열·충선·충숙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편찬했으며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수했다.

그의 본관(本官)은 한산(韓山)이며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저서로는 『가정집』(稼定集) 4책 20

권이 있다. 안향 백이정이 들여온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앞장선 성리학의 이해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색(1328~1396)은 이곡의 아들이요, 백이정의 제자인 이제현의 제자로서 역시 1352년(공민왕 1) 원나라 정동행성 향시에 1등, 1354년(공민왕 3) 제과(制科)에 1등으로 합격하여 그곳에서 벼슬살이도 하고 성리학을 공부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1363년(공민왕 12)에 정동행성 유학제거(征東行省 儒學提舉)로서, 1367년(공민왕 16)에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서 성균관 겸대사성(成均館兼大司成)을 겸직하여 성균관 중흥에 앞장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당시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은 겸교관(兼敎官)으로서 이색을 도왔다. 그리하여 1373년(공민왕 22)에는 한산군(韓山君)에 피봉되었다.

그러나 1389(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로 이성계(李成桂)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창왕(昌王)을 옹립했다가 이성계 일파에게 밀려 여러 차례 귀양을 갔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피봉되었으나, 이듬해

6) 任先彬, 앞의 논문, 162~163면.

여강(驪江)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색은 불교는 본래 좋은 것이지만 승려들이 타락하여 피해가 심하니 불교적 윤리관을 유교적 윤리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다.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고 성균관을 부흥시키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정몽주 이승인 박상충 정도전 권근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 이성계를 추종하는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기타 제자들의 대립으로 말년을 불우하게 보냈다. 저서로는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牧隱文集)』, 『목은시고(牧隱詩

稿)』 등이 있으며, 묘는 서천 죽혼리에 있고 서천군 한산의 문헌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종덕(李種德) 이종학(李種學)은 그의 아들이다. 이종학은 정도전이 손흥종(孫興宗)을 시켜 이승인(李崇仁)과 함께 살해했다.

이색의 후손으로는 이자(李紱) 이개(李

垹) 이지함(李之函) 등이 있다.

이개(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이종선(李種善)의 손자이며 이계주(李季疇)의 아들이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1436년(세종 18)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441년(세종 23)에 집현전(集賢殿) 저작랑(著作郎)이 되어 『명황계감(明皇誠鑑)』의 편찬에 참여하고, 1444년



(세종 26) 집현전 부수찬으로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제정에 참여하여 『운회(韻會)』를 언문으로 번역했으며, 1447년(세종 29) 9월에는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에 참여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부탁하고 승하하자 1456년(세조 2) 노산군(魯山君)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1691년(숙종 17)에 와서 그를 비롯한 사육신의 관직이 복구되고 사육신이 공인되었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충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이자(1466~1524)는 대사간 이예견(李禮堅)의 아들로 1501년(연산군 7)에 진사시에, 1504년(연산군 10)에 식년문과에 장원하여 중종반정 이후에 벼슬살이를 했다. 그는 훈구파와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과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되어 음성 충주 등지에 은거했다.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올랐고 저서로는 『음애일기(陰崖日記)』 『음애집(陰崖集)』이 있으며 충주의 팔봉서원(八奉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독신했다.

4. 기호유학의 흐름과 내포

기호 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 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 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는 이지함(李之函) 서기(徐起) 홍가신(洪可臣)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이지함은 화담의 영향을 받아 유학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산수학(象數學)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상공업도 중시했다.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산수 등에 두루 능통한 박학풍(博學風)의 인물이다.

그는 1573년(선조 6)에 조식의 문하인 정인홍(鄭仁弘)과 최영경(崔永慶), 이황의 문인인 조목(趙穆) 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천거되었다. 청하현감을 거쳐 1578년에는 아산현감으로 재임하면서 노약자와 절인을 구호하기도 했다. 그에 관한 기사는 17세기 문헌인 『어우야담(於于野談)』 『기옹만필(奇翁漫筆)』 『죽창한야화(竹窓閑野話)』 등에 많이 나타난다. 그는 정통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의

(義)와 이(利)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여 상업과 수공업을 중시했다. 이러한 학풍은 그의 조카인 이산해(李山海)와 유몽인(柳蒙仁) 김신국(金愼國) 등 북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광해군대의 북인정권은 화담계열과 남명계열(南冥系列)의 연립정권이었다. 따라서 이지함의 사상은 북인정권에 그 일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물렸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며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고, 조헌(趙憲)등과 함께 동방분야도(東方分野圖)를 고쳤다고 한다.



동방분야도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체계였다. 그는 서자인 박지화(朴枝華)와도 친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선조인 이지완(李志完) 이지안(李志安)등도 박지화의 제자이다.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백겸(韓白謙)·윤효전(尹孝全~尹頊의 아버지)·홍이상(洪履祥) 등도 민순의 제자이다. 홍가신은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 바 있다.

이와 같은 화담학파는 광해군의 폐출로 복인정권이 무너지자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호학파는 율곡(栗谷) 이이(李珥)를 정점으로 하는 서인계열의 학파가 급조되게 되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부자의 예학파가 등장하여 율곡을 스승으로 모시고 송시열(宋詩烈) 송준길(宋俊吉) 이유태(李惟泰) 윤선거(尹宣舉) 유계(俞棨) 등 우수한 제자들을 거느려 새로운 학통을 정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嶺南)의 퇴계학과(退溪學派)와 양대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더구나 서인학통은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 퇴계의 남인학통은 연립정권의 형태로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인정권을 구성하던 기호의 화담학과와 영남의 남명

학파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설 논쟁도 이 두 학파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으며 율곡학과 내에서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낙론(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호론(湖論)으로 갈리게 되었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이 그것이다. 퇴계·율곡 학파의 논쟁점은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이었는데 비하여 낙론과 호론의 논쟁점은 인물성동이론이었다. 율곡의 주기론(主氣論)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호락시비(湖洛是非)가 터진 것이다. 율곡은 4단 7정(四端七情)에 있어서는 이발(理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심(人心) 도심(道心)에 있어서는 이발(理發)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형기지사(形氣之私)가 발한 것은 인심, 성명지정(性命之正)에서 발한 것은 도심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 가운데 필경 두 가지 지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詩烈)의 수제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는 인심생어형기지사(人心生於形氣之私)라 할 때 기(氣)는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가리킨 말이며, 칠정발어기(七情發於氣)라 할 때 기(氣)는 심(心)을 가리킨 말이라 했다. 이점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 호론(湖論)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낙론(洛論)의 외암(巍巖) 이간(李柬)은 일체의 만물이 천부의 본성(本性)은 같으나 인물성(人物性)의 차이는 기질(氣質)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 했다. 반면에 남당 한원진은 스승의 학설을 따라 성(性)을 단순한 이(理)로 보지 않고 이(理)가 일정한 기(氣)로 배정되어 나올 때 상이한 만물로 된다고 한다. 예컨대 사람은 사람의 이기배합(理氣配合)이 있고 소는 소의 일정한 이기배합이 있는데, 사람이 만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를 낙론이라 하고 후자를 호론이라 한다. 외암의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서울 인근에, 남당과 동조자들은 호서 지방에 살았기 때문이다. 남당은 율곡 우암 수암의 주기론(主氣論)을 집대성했다. 남당의 심즉기설(心卽氣說)은 실로 퇴계의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맞서는 것이었다.

호론을 따르는 사람은 예산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后), 서산의 한간(寒澗) 김한록(金漢祿),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등이 있다.

낙론을 따르는 사람은 외암 이간을 비

롯하여 도암(陶菴) 이재(李穡), 박필주(朴弼周), 어유봉(魚有鳳), 관봉(冠奉) 현상벽(玄尙壁) 등이 있다. 뒤에 안동 김씨의 김원행(金元行), 김조순(金祖淳) 등이 정권을 잡아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남당 한원진(1682~1751)은 세종 때의 영의정 한상경(韓尙敬)의 후손으로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의 제자이다. 그는 이이(李珥)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바탕으로 인물성동이론 논쟁에서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했다. 그의 심성설(心性說)은 우주만물의 생성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주에는 양건(陽健)한 기(氣)로서 남성적인 것이 되고, 음순(陰順)한 기(氣)로서 여성적인 것이 되는 기화(氣化)의 단계, 음양(陰陽)의 기(氣)가 모여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형화(形化)의 단계가 존재하며, 형화를 통해 형성된 형체의 내부에도 기화(氣化)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만물의 생성을 기화, 형화, 형화속의 기화의 3층의 구조로 파악하여 성삼층설(性三層說)을 주장했다. 그는 이 성삼층설에 입각하여 성(性)을 인간과 사물이 같은 초형기(超形氣)의 성,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因氣質)의 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雜氣質)의 성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성

(性)은 이(理)가 기질(氣質) 속에 내재된 뒤 운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율곡의 생각을 계승하여, 인성과 물성은 기질을 관련시키게 되는 인기질(因氣質)의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는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발심체(未發心體) 논쟁에서도 그는 미발(未發)의 심체(心體)를 본래부터 선(善)하다는 이간(李東)의 주장과는 달리 미발한 심체에도 선악(善惡)의 가능성이 공재(共在)한다는 미발심체 유선악설(未發心體 有善惡說)을 주장했다.

한원진은 충청도 결성(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를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한다. 저서로는 『역학문답(易學問答)』·『역학계몽(易學啓蒙)』·『거관록(居官錄)』·『문왕역석의(文王易釋義)』·『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故)』·『남당집(南塘集)』 38권·『임시취고(臨時取考)』·『경의기문록(經義記問錄)』·『퇴계집소석(退溪集疏釋)』·『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장자변해(莊子辨解)』·『선학통변(禪學通辯)』·『왕양명집변(王陽明集辨)』·『심경부주차기(心經附註割記)』·『춘추별전(春秋別傳)』·『근사록주설(近思錄註說)』·『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가례소의의록(家禮疏擬疑錄)』·『가례

원류의록(家禮源流疑錄)』·『고사편람(古事便覽)』 등이 있다.

이중 『경의기문록』과 『주자언론동이고』를 제외한 저서는 김천 직지사(直指寺)에 판본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퇴계학설에 위배된다 하여 어사(御史) 김정희(金正喜)의 방화로 없어졌다. 1741년(영조 17)에 마친 『주자언론동이고』는 우암 송시열이 시작하여 그의 스승인 수암 권상하를 거쳐 50년만에 완성한 저작이다. 율곡 이이가 기(氣)는 발(發)해도 이(理)는 발(發)하지 않는다 했으나, 주자가 사단(四端)은 이지발(理之發)이요 칠정(七情)은 기지발(氣之發)이라 한 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주자의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삽입한 것이라는 것을 주자의 모든 저작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외암 이간(1677~1727)은 수암 권상하의 제자 중 강문 8학사(江門八學士: 韓元震·李柬·尹鳳九·崔徵后·蔡之洪·李根·玄尙壁·成萬徵)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 같이 오상(五常)을 가진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고 미발(未發)한 마음의 본체는 기질의 선악이 없으므로 본래선(本來善)이라는 미발심체본선론(未發心體本善論)을 주장했다. 이간은 충청도 온양에 살았지만 그의 추종자들

이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를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 한다.

이간과 한원진은 다같이 기호학과이므로 율곡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신봉했다. 이통기국설은 주자의 이동기이설(理同氣異說)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통(理通)이란 이(理)는 인(人)과 물(物)에 공통적 보편적이어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기국(氣局)의 기(氣)는 인(人)과 물(物)에 국한적 특수적이어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간은 주리적(主理的) 입장에서 이통(理通)과 이동(理同)을 내세움으로서 인성과 물성을 구동(俱同)한 것으로 보아 다같이 오상(五常)을 가진다는 동시오상(同時五常)의 논리를 세웠다. 이에 대하여 한원진은 주기적(主氣的) 입장에서 기국(氣局)과 기이(氣異)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과 물성을 상이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기질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했다. 이간은 성(性)은 곧 이(理)이므로 인성과 물성은 모두 이(理)로서의 태극(太極), 천명(天命)의 원형이 정(元亨利貞) 사덕(四德)을 본성으로 품수하여 오상(五常)의 본연(本然)을 구유(俱有)하므로 그들 본성은 이통(理通)으로 동시오상(同時五常)이다. 인성과 물성이 상이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만 기질의 국한성에서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人)과 물의 본성, 즉 본

연지성(本然之性)은 동시오상(同時五常)으로서 모두 같고, 또 사람의 미발심체(未發心體)는 본선(本善)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원진은 인성과 물성을 각기 그 기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한 것이며, 그 기질지성(氣質之性)이 각기 인(人)과 물(物)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여 인물의 본성 즉 기질지성이 인(人)과 물(物)의 본성, 즉 기질지성인 인기(因氣)로서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미발심체도 기질지성으로서 선(善)과 악(惡)이 함께 있다는 유선악론(有善惡論)을 주장했다.

이간은 온양의 외암서원(巍巖書院)에 배향되었다. 호락시비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귀결을 보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호론이 우세하다가 뒤에는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주역들이 낙론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 호락시비는 결국 정치적으로 송시열의 북벌론(北伐論)을 지지하느냐, 북학론(北學論)을 지지하느냐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청나라를 오랑캐(禽獸)로 볼 것이냐, 선진국으로 볼 것이냐는 차이이다.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 정치인도 많다. 이산해(李山海) 박지계(朴知誠) 김홍욱(金弘郁) 권시(權魅) 조익(趙翼) 조헌(趙憲) 이안눌(李安訥) 조극선(趙克善) 남구만(南九萬) 채제공

(蔡濟恭) 등이 그들이다.

이산해(1539~1609)는 한산이씨로 내자시정(內資寺正) 이지번(李之蕃)의 아들이며 화담의 제자인 이지함(李之蘭)에게서 배웠다. 그는 1558년(명종 13)에 진사, 1561년(명종 16)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홍여순(洪汝諄)과 함께 북인정권을 이끌어갔으며 영의정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문장 8가(文章八家)의 한사람으로서 서화(書畵)에 뛰어나 조광조 묘비(趙光祖 墓碑)와 이언적 묘비(李彦迪 墓碑)를 썼다. 저서로는 아계집(鵝溪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있다.

박지계(1573~1635)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追崇)하는데 앞장선 이론가이다. 인조 초 김장생(金長生)·장현광(張顯光)과 함께 조정에 정소된 3대 산림(山林)이었으며, 예학에 뛰어난 학자였다.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신창(新昌) 사람이다.

김홍욱(1602~1654)은 경주김씨로 정조대의 벽파(辟派)인 김구주(金龜柱)의 조상으로, 효종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부인 강빈(姜嬪)의 원통함을 논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다. 후에 신원되어 서

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권시(1604~1672)는 원래 서인이면서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남인인 허목(許穆)과 윤선도(尹善道)의 예론(禮論-三年說)을 지지한 이론가로서, 그의 후손들은 남인이 되었다. 원래 박지계의 문인으로 24세에 공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대안에서 살았다.

조익(1579~1655)은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趙光祖) 김공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고, 김육(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실시 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다. 저서로는 『곤지록(困知錄)』 『역상개략(曆象概略)』 『중용주해(中庸註解)』 『대학주해(大學註解)』 『서경천설(書經箋說)』 등이 있으며 묘는 대흥(大興) 동화산(東華山) 아래(예산군 신양면 백석리)에 있다.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阜書院), 개성(開城)의 숭양서원(崇陽書院),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예학(禮學) 경학(經學) 병법(兵法) 복술(卜術)에 밝았으며, 장유

(張維) 최명길(崔鳴吉)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사우지정(四友之情)이라 할만큼 서로 친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안눌(1571~1637)은 덕수이씨(德水李氏)로 이행(李待)의 증손이며,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권필(權弼) 윤근수(尹根壽) 이호민(李好民)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듣고 지은 문가(聞歌)가 특히 유명하다. 홍주목사(洪州牧使) 담양부사(潭陽府使)와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냈으며, 담양(潭陽)의 구산서원(舊山書院), 면천(沔川)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저서로는 『동악집(東岳集)』 26권이 있다. 묘소가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에 있다.

조극선(1595~1658)은 한양조씨로 박지계(朴知誡)와 조익(趙翼)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다. 온양군수(溫陽郡守)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으며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덕산(德山)의 회암서원(晦菴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야곡집(冶谷集)』 10권과 『야곡삼관기(冶谷三官記)』가 있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1600년경에 덕산에 입향하여 한양조씨 세거지를 마련하였으며, 묘비가 남아 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結成)에 우거(寓居)했다.

채제공(1720~1799)은 홍주(洪州)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이다.

5. 내포의 실학자들과 근대화

내포에는 성호학통(星湖學統)의 실학자들이 많이 살았다. 여주이씨인 이병휴(李秉休) 이용휴(李用休) 이삼환(李三煥) 이철환(李喆煥) 이가환(李家煥) 이재위(李載威) 등이 그들이다.⁷⁾

이병휴(1710~1777)는 성호의 조카이며 고제(高弟)로서 성호좌파(星湖左派)의 수장이다. 그 문하에서 권철신(權哲身) 권일신(權日身) 등 천주교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경학(經學)에 밝았으며 성호의 가장(家狀)을 썼다. 저서로는 『정산유고(貞山遺

7) 내포의 실학자에 대해서는 李佑成, <내포지역의 실학자>, 『내포문화정보』 창간호(1997.4., 내포문화연구원), 44~51면 참조.

8)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15

稿)』가 있다.

이용후(1708~1782)는 덕산현 장천리에서 태어나 외가인 덕산현 염곡에서 자라났다. 재야학자로서 문학(文學)에 밝았으며 음운학(音韻學) 병학(兵學) 농학(農學)에도 두루 달통했다. 정약용은 “그는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으므로, 그의 문장이 기이하고 새롭고 공교로와 영조 말년 정에는 그의 문명(文名)이 일세의 으뜸이었으며, 당시 문인들 중에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사수(師受)했으므로 그는 비록 한갓 선비의 신분에 불과했으나 문권(文權)을 잡은지 30여년이나 되었다. 이것은 종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평했다.⁸⁾

그는 또한 “문장(文章)과 정사(政事)는 처음부터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다. (중략) 문장은 반드시 나라를 빛내고 민중을 잘 다스리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여 실용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실학은 아들인 이가환(李家煥) 외손 이승훈(李承薰) 또는 이학규(李學逵) 등에게 전수되었다. 저서로는 『혜환잡저(惠寰

雜著)』 11책과 『혜환시고(惠寰詩藁)』 2책이 있다. 고덕에 살면서 뱃길로 안산(安山) 성포리(聲浦里)에 있는 스승인 성호선생과 왕래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이가환(1742~1801)은 정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관료였다. 채제공(蔡濟恭)의 후계자로 남인의 지주가 될 것으로 촉망받았으나, 정조가 죽자 천주교도로 몰려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처형되었다. 저서로는 『금대집(金帶集)』 2권과 『동비낙론(東裨洛論)』이 있다. 우리 나라 역사 풍속 인물 문학에 두루 밝았다.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이삼환(1729~1814)은 12세에 종조인 성호선생에게서 성호의 손자 이구환(李九煥)과 함께 수학했으며 부친인 이병후의 학문을 전수했다.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저서로는 『소순산방장(小盾山房藏)』 8책(5책 소실) 『소순산방급고편(小盾山房汲古編)』 『목재영언(木齋詠言)』 『금삼품(金三品)』 1권, 『장천리향약(長川里鄉約)』 1권, 『백가의(百家衣)』 1권이 있다.

이철환(1722~1779)은 성호의 종손

이고 이재위(李載威)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물보(物譜)』를 지었다.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버지 이재위이고 편찬을 정하고 책 이름을 붙인 것은 아들 이철환이었으며 이기경(李基慶)이 발문을 썼다.

이외에도 유명한 고증학자인 김정희(金正喜)도 내포사람이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도 고택(古宅)이 남아 있다. 그는 송학(宋學)과 한학(漢學)을 절충한 고증학(考證學)의 대가였다. 그는 특히 금석학(金石學)에 밝아 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인 북한산비(北漢山碑)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나 이른바 추사체(秋史體)를 개발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그의 작품이다. 저서로서는 『추사집(秋史集)』이 있으며 이상적(李商適) 오경석(吳慶錫) 등 중인 출신 인재들과 교유하여 영향을 미쳤다. 경주김씨이며 벽파(僻派) 집안의 인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가까웠다.

내포지방은 천주교도를 많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

충남의 재발견

부인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2~1846)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김대건은 밋내 놀피, 즉 오늘날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 용인으로 이사했다. 1845년 상하이에

서 서품되었으나 천주교 박해로 순교했다. 다음은 최양업(崔陽業, 토마스, 1821~1861) 신부이다. 그는 홍주(洪州) 다랫골, 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태생으로 11살 경에 서울로 이사

했다. 그는 마카오로 유학간지 15개월 만인 1883년에 병으로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내포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은 여사울, 지금의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천주신앙 공동체인 여사울 천주신앙공동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비록 양반 출신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올라가 권일신(權日身)의 문하에 들어가 김범우(金範雨)의 지도로 천주교에 입문하고 고향에 돌아와 뒷날 내포교회로 불린 여사울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내포에는 근대화에 앞장섰거나 의병 활동을 한 사람도 많다.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충주군 조휘곡, 지금의 홍성읍 소항리 사람으로 한말에 이설 임승주 임한주 등과 함께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한원진의 남당학과 계통으로 그 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외에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고택이 있는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온양 평촌에서 피살되었고, 홍성 사람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승려로서 3·1운동의 발기인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님의 침묵』 등 많은 시를 남겼으며 일제에 항거하여 끝까지 저항했다. 문중구(1853~1897)는 당진사람으로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심훈(沈薰, 1907~1936)도 당진 사람으로 집필할



추사 영정

동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태안 사람인 이종일(李鍾日)은 계몽운동에, 청양 사람인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대원군을 하야시키는데 앞장섰다. 최익현은 청양의 모덕사(募德祠)에 배향되었다. 윤봉길(尹鳳吉, 1908~1932)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여 많은 독립운동을 펴다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승전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애국지사이다. 덕산에는 윤의사의 생가와 성장가, 영정이 봉안된 사당인 충의사가 있다.

6. 맺음말

이와 같이 내포사람들은 우리나라 역

사의 변혁기마다 나뉠대로의 큰 역할을 했다. 바다에 가깝고 평야가 많으며 서울과 가까울 뿐 아니라,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물이 쉽게 흘러들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대의 사대부 집안이 많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학계와 관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여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